

- 11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 
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.  
주님의 말씀입니다.  
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필리 2,8-9 참조

- (◎ 그리스도님,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.)  
○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,  
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.  
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 
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.  
(◎ 그리스도님,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.)

복음

가해\*

〈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〉

○ 해설자 ✦ 예수님 ● 다른 한 사람 ● 다른 몇몇 사람 ◎ 군중

- 마태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. 26,14-27,66
- 14 그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 
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물었다.
- 15 ● “내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 
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?”
- 수석 사제들은 은돈 서른 닢을 내주었다.
- 16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.
- 17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.
- “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?”

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또는 짧은 복음

- 마태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. 27,11-54  
 그때에 <sup>11</sup>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. 총독이 물었다.
- “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?”
-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.
- ✚ “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.”
- 12 ○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.
- 13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.
- “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?”
- 14 ○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.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.
- 15 축제 때마다  
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 주는 관례가 있었다.
- 16 마침 그때에 예수 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.
- 17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.
- “내가 누구를 풀어 주기를 원하오?  
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?”
- 18 ○ 빌라도는  
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.
- 19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 
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.

- 53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,  
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 
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.
- 54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 
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.
- “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.”
  - 주님의 말씀입니다.
  -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나해\*

〈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〉

○ 해설자 ✚ 예수님 ● 다른 한 사람 ● 다른 몇몇 사람 ◎ 균중

-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. 14,1-15,47
- 1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.  
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 
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.
- 2 그러면서 “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 
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.” 하고 말하였다.
- 3 예수님께서  
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.  
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,  
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,  
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.
- 4 몇 사람이 불쾌해하며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.
- “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?”

-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. 15,1-39
- 1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,  
곧 온 최고 의회와 의논한 끝에,  
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.
- 2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.
- “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시오?”
-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.
- ✚ “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.”
- 3 ○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.
- 4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.
- “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?  
보시오,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?”
- 5 ○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.  
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.
- 6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 
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 주곤 하였다.
- 7 마침 바라빠라고 하는 사람이  
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.
- 8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 
자기들에게 해 오던 대로 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.
- 9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.
- “유대인들의 임금을 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오?”
- 10 ○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 
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.
- 11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 
바라빠를 풀어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.

- 35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.  
 ● “저것 봐! 엘리야를 부르네.”
- 36 ○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,  
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.  
 ● “자,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봅시다.”
- 37 ○ 예수님께서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.

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.

- 38 ○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.  
 39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 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 
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.  
 ● “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.”  
 ○ 주님의 말씀입니다.  
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다해\*

〈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〉

○ 해설자 ✚ 예수님 ● 다른 한 사람 ◎ 다른 몇몇 사람 ◎ 군중

-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. 22,14—23,56
- 14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.  
 15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.  
 ✚ “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 
 간절히 바랐다.  
 1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 
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



-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.
- 54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.
- 55 갈릴래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 
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,
- 56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.  
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.  
주님의 말씀입니다.
-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또는 짧은 복음

-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. 23,1-49  
그때에 백성의 원로단,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<sup>1</sup>일어나  
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.
- 2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.
- ◎ “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.  
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 
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.”
- 3 ○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.  
● “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?”  
○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.  
✚ “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.”
- 4 ○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.  
● “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.”
- 5 ○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.

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.

- 9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

-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**복음 환호송**

필립 2,8-9 참조

- (◎ 그리스도님,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.)
-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,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.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.
- (◎ 그리스도님,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.)

- 9. **그다음에 요한이 전한 주님의 수난기를 성지 주일과 같은 방법으로 봉독한다.**

**복음**

〈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〉

○ 해설자    ✚ 예수님    ● 다른 한 사람    ◎ 다른 몇몇 사람    ◎ 군중

-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. 18,1-19,42
- 그때에 <sup>1</sup>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.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.
- <sup>2</sup>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,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.
- <sup>3</sup>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,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.